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DAIL community

다일공동체

2013.05

Hot issue

FOCUS 밥퍼 전세계 분원의 식단 /02
REVIEW 알렉산더크냐제브 연주회 /06
천가기업 한전 KDN /14

Cambodia



Korea



China



Nepal



이 땅에
밥끓는 이
없을 때까지

Vietnam



Philippines



Tanzania



USA



I ♥ Tanzania





Our Children, Our Hope!

캄보디아의 희망! 씨엠립의 아이들을 씻기고 먹이고 치료하고 가르쳤더니 얼마나 깨끗하고 튼튼하고 똑똑해졌는지요. 설립자라고 올 때마다 떠날 때마다 꽃을 전해주고 감사를 표현해 와서 제가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제 품안에 안겨 들어와 떠날 줄 모르는 씨엠립 아이들이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씨엠립 아이들의 눈망울처럼 투명하고 아름다운 눈망울은 그 어디서도 본 일이 없습니다.

가난한 캄보디아에서도 가장 가난한 마을에 사는 우리 아이들이지만 꾸밈없는 미소는 이 세상 어린이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일 것입니다.

프놈끄라움의 다일샘물유치원과 종끄니어의 다일 KT&G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볼 때면 아시아의 희망인 우리 새싹들이 쑥쑥 커가는 것이 눈에 보여서 이 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고백과 “our children, our hope!” 라는 외침이 저절로 나옵니다.

친구 여러분들을 캄보디아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와서 보시면 저와 똑같은 고백을 하실 것 입니다. 이 보다 더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은 일찌기 없었다는 감사와 감탄의 현장 고백이 저절로 터져 나올 것입니다.

CONTENTS

2013.05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 02 FOCUS 다일 밥퍼 전세계 분원의 식단
- 06 REVIEW 세번째 문화나눔, 알렉산더크냐제브연주회
- 07 REVIEW 2013 식목일행사
- 08 국내 다일의 현장 다일복지재단
- 10 해외 다일의 현장 베트남다일공동체
- 12 해외 다일의 현장 필리핀다일공동체
- 13 해외 다일의 현장 네팔다일공동체
- 14 천사기업 한전KDN
- 16 봉사자 나눔터- 밥퍼는000다
- 17 봉사자 나눔터-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 18 아름다운변화 리비다이야기
- 19 영혼을 위로해주는 시
- 20 다일뉴스
- 23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규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24 후원안내

* 별지 마누카네추렐

후원 문의 및 신청 02-2212-8004
www.dail.org

1988년 청량리 쌍굴다리에서 시작 된 밥퍼나눔운동이 2013년 현재 8개국가의 밥퍼나눔운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땅의 밥 굶는이 없을 때 까지" 라는 하나의 비전 아래 8개의 다양한 색이 묻어나는 "청량리에서 아프리카까지..." 밥퍼 전세계 분원의 식단을 만나보세요.

한국 청량리 밥퍼나눔운동본부



1. 청량리 밥퍼나눔운동본부

대상 : 노숙인, 독거/무의탁 어르신

횟수 : 매주 월~토요일

밥퍼 배식 시간대 : 오전 11시-12시 30분

2. 식단 소개

밥 + 국 + 3~4가지 반찬

일주일에 세번정도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고기반찬을 준비합니다.

밥퍼엔 잔칫날이 따로 없이 잔칫날인 것처럼 잡채와 전, 떡을 수시로 준비해 어르신들과 나눕니다.

1. 베트남다일공동체 밥퍼

대상 : 1. 고아 2. 장애우 3. 독거노인

횟수 : 매주 화, 목, 토요일

(주 3일, 매일급식 예정)

밥퍼 배식 시간대 : 오후 4시-5시

2. 식단 소개

밥 + 국 + 고기(생선) + 채소

3. 베트남 식문화

베트남은 쌀이 주식이며, 육류, 생선, 채소로 만든 반찬을 함께 먹습니다. 쌀을 많이 이용하여 쌀국수나 쌀로 만든 떡 같은 쌀 가공품들이 다양합니다.

아침식사는 밥, 국 또는 베트남식 국수와 프랑스식 빵을 주로 먹고 점심과 저녁식사는 밥, 생선, 육류, 채소, 고기국을 먹거나 프랑스식으로 빵과 육류나 새우를 식단으로 합니다.

베트남다일공동체 밥퍼



캄보디아다일공동체 밥퍼



1. 캄보디아다일공동체 밥퍼

대상: 센터 주변의 19세 미만의 아동들

횟수: 매주 월~금요일, 일요일은 예배 후 빵을 나눔

밥퍼 배식 시간대: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

2. 식단 소개

밥(주식) - 고기+야채(반찬1) - 계란(반찬2) - 과일(반찬3)

3. 캄보디아의 식문화

캄보디아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침-점심-저녁에 식사 시간을 갖습니다. 캄보디아의 식문화는 날씨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일단 더운 지방이기에 음식의 간이 세고,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이 많습니다. 저녁식사도 조금 일찍 하는 편입니다.

1. 네팔 다일공동체 밥퍼

대상 : 모노하라 마을 19세 미만의 아동들

횟수 : 매주 월~금요일, 토요일은 예배 후 간단한 간식을 나눔

밥퍼 배식 시간대 : 오전 8시~9시

2. 식단 소개

월, 수, 금 “밥 + 콩국 + 반찬 + 과일”

화, 목 “밥 + 콩국 + 고기반찬”

3. 네팔의 식문화

네팔의 식문화는 “아침 티타임 - 식사(9~10시 무렵) - 오후 티타임 - 저녁(7~8시 무렵)”입니다.

네팔다일공동체 밥퍼는 아이들이 학교와 일터에 가기 전 밥퍼에 와서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오전에 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팔다일공동체 밥퍼



탄자니아다일공동체 밥퍼



1.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밥퍼

대상 : 쿤두치 채식장 공터의 빈민촌 아동들
 횡수 : 매주 토요일 (주 1회)
 밥퍼 배식 시간대 : 오후 1시

2. 식단 소개

쌀밥+나마음추지(감자와 토마토를 주 재료로 만든 수프) +마하라게(콩으로 만든 요리)

3. 탄자니아의 식문화

탄자니아 사람들의 주식은 '우갈리'입니다. 옥수수 가루를 물에 풀어 끓이며 계속 저으면 백설기 같이 됩니다. 하지만 우갈리를 먹는데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탄자니아에도 쌀이 경작됩니다. 그러나 옥수수 가루보다 쌀 가격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사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1. 미주 다일공동체 밥퍼 (애들랜타)

대상 : 성인남성 홈리스 400여명
 횡수 : 매월 첫 번째 토요일
 밥퍼 배식 시간대 : 오후 5시-6시

2. 식단 소개

샌드위치(햄, 터키, 치즈, 토마토, 양상치, 오이피클)+칩+과일+음료수

3. 미국의 식문화

미국은 보통 아침은 주로 커피와 시리얼, 빵 등을 간단히 먹고, 점심은 주로 샌드위치, 햄버거 등을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스테이크 등 좀 거하게 먹습니다. 경제위기가 닥치기 전만해도 치킨윙, 생선튀김 등 다양한 메뉴로 밥퍼를 했는데, 경제 위기가 찾아온 후 홈리스들이 너무 많이 늘어서 저희들 예산으론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 샌드위치로 메뉴를 바꿨습니다.

미주다일공동체 밥퍼



필리핀다일공동체 밥퍼



1. 필리핀다일공동체 밥퍼

대상 : 4세~14세 아동
 횟수 : 매주 월~금요일, 토요일은 빵퍼로
 빵을 나눔
 밥퍼 배식 시간대 : 오전 11시 30분
 ~오후 12시 30분

2. 식단 소개

루가오(닭죽)+시니강(야채고기국)+산뿌라도(초코죽)+빤싯(쌀면으로 만든 잡채같은 요리)+참수위(야채고기볶음)

3. 필리핀의 식문화

필리핀은 하루 삼식과 중간 간식이 있는 문화입니다. 필리핀의 밥퍼는 11시30분부터 유치원 아이들과 오후반을 가는 아이들이 미리와서 먹고 12시부터는 오전반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와서 든든한 한끼의 식사를 합니다.

1. 중국다일공동체 밥퍼

대상 : 훈춘시 고아원 아동들
 횟수 : 매주 월~일요일
 밥퍼 배식 시간대 : 아침 점심 저녁 하루3번

*중국다일공동체 다일어린이집은 중한합작 훈춘시 고아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24시간 함께 생활하는 대가족의 형태입니다. 타 분원의 밥퍼와는 다른 특성을 띄고 있습니다.

2. 식단 소개

밥 + 국 + 김치 + 2가지 반찬

3. 중국의 식문화

다일어린이집이 위치한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주식은 쌀이며 동시에 밀가루 음식으로 만티(간이 안 된 흰빵), 빠오즈(큰 찐빵에 만두 속이 들어있는 형태), 지아오즈(만두)에 채소를 볶아서 함께 먹기도 합니다.

중국다일공동체 밥퍼



Alexander Kniazev

세 번째 문화나눔

"알렉산더 크냐제브 내한공연"

다일공동체 세번째 문화나눔으로 첼로의 거장 '알렉산더 크냐제브 내한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나눔행사는 **나눔문화예술협회**가 주관하고 **서초교회**에서 대관해주셨습니다.

다일공동체를 사랑하고 후원해 주시는 많은 가족과 국내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선보인 이 연주회의 후원금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굶주린 아이들에게 밥과 사랑을 나누는 탄자니아다일공동체에 전 해졌습니다.

알렉산더 크냐제브는 특이하게 첼로와 함께 오르간을 연주해서인지 자신의 첼로를 강하게 터치해 보다 남성적이고 육중하며 정렬적인 사운드를 추구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마초(macho) 연주가이며 함께 협연하는 모스크바 출생의 강렬하고 감성적인 연주를 선보이는 피아니스트 카티아 스카나비는 그리스의 마리아 칼라스 콩쿠르 우승 및 반 클라이번 콩쿠르의 결승 진출로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으며 유리 바슈메트(Yuri Bashmet)와 기돈 크레머(Gidon Kremer)의 좋은 음악적 동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문화나눔은 MC또한 나눔기부로 진행되었는데요, 방송인 권영찬 박정숙님께서 MC로 전액을 기부하시며 나눔기부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세번째 문화나눔행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이번 행사를 주관해 주신 **나눔문화예술협회**와 강당을 선뜻 대관해 주신 **서초교회**에 감사를 전합니다.

1. 알렉산더 크냐제브
2. 후원의 밤(왼쪽부터)
박정숙, 김연수 상임이사, 권영찬
3. 공연 이후 다일가족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콘서트인데 제가 빠질 수가 있나요, 다일공동체의 최일도 목사님이 멘토이기도 한만큼, 아무리 바빠도 꼭 참여해야죠! 나눔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마세요. 경제적인 여유가 없더라도 공연을 보시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것만으로도 나눔입니다. 혹 경제적인 여유와 마음적인 여유가 있다면 느끼신 만큼 기부를 한다면 그 마음이 고스란히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2013년 설곡산 식목행사

오늘까지의 설곡산을 위해 눈물과 땀으로 일구어 오신 최일도 목사님과 김연수 사모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고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더 아름답고 조화로운 영성과 침묵의 동산을 꿈꾸고 있습니다.

2013 올해 식목행사는 설곡산과 묵안리 텃밭을 일구어 감자와 채소를 심는 것은 물론이고 설곡산다일공동체 경내와 기도 14처 목상의 길에 홍단풍 나무 100주를 심었습니다. 오늘 심은 나무들은 앞으로 두고두고 설곡산 경내와 목상의 길을 멋지게 단장할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식목행사 당일 일기예보를 통해 큰 바람과 비가 온다고 예보되어서 많이 망설여졌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준비해왔기에 더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심기에 가장 적절한 날씨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계획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전 날에 오신 벗님들과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올라오신 벗님들이 있어서 나무를 심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전에는 비를 맞으면서 식목행사를 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악비가 내렸습니다. 나무를 심으며 오히려 선선한 날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무를 다 심고 나서 식목행사를 한 분들과 삼겹살 파티를 하고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데 그때부터 비가 굼어지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유빌라떼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환경을 바라보노라니 비 또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일체은혜 감사뿐인 식목행사였습니다.

설곡산 다일공동체 후원하기

후원계좌	국민은행 010901-04-064419 (예금주 :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문의	설곡산다일공동체 031-585-2004

설곡산은 사계절 언제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외국의 어느 휴양지나 국내 어떤 유명한 산에도 부끄럽지 않은 설곡산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런 설곡산다일공동체를 섬기며 살고 있는 것은 저에게 크나큰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Vietnam

대.청.밥

대한민국 청소년 밥퍼

최일도목사님과 오재학총영사님, 한인여성회장님, NGO협의회장님, CBMC회장님, 코참부회장님등 기관의 대표들과 학생, 한인들을 모시고 4월12일 “대,청,밥”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밥퍼' 는 베트남 내의 한인청소년들에게 봉사의 장을 열어주기 위한 "청소년 봉사 단체" 입니다.

베트남
다일공동체
후원하기

후원계좌

국민은행 467701-01-142594
(예금주 :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문의

이종현원장 84-12-6317-7912

2013 베트남 다일공동체
대한민국 청소년 밥퍼 발대식 현장



현재 호치민에는 많은 한인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봉사단체와 여건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청소년들만을 위한 문화공간과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또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에서 활발하게 구제와 봉사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베트남 다일공동체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봉사단체”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대.청.밥’(대한민국 청소년 밥퍼)은 다일공동체 산하에 있는 단체로, 청소년들이 베트남에서 생활하면서 베트남을 남의 나라로 생각하지 않고, 베트남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베트남 지역의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단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밥을 퍼주는 사역부터, 도시락을 배달하고, 현지 마을을 방문하여 마을을 청소하고, 청소년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서 문화공연 및 베트남 친구들에게 문화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에 앞서서, 봉사에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봉사에 대한 마음을 심어주고, 건강한 청소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위한 세미나와 강연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청,밥’의 주체는 청소년들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치위원이 되어서,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즉 어른들이 정해주고 시키는 봉사를 수동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치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대청밥은 청소년들이 봉사에 대한 마음을 배울 뿐만 아니라 자치위원으로 또 주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리더십과 협동심, 자립심을 배우고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와 장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인된 봉사단체로서(베트남다일공동체 밥퍼 사역 산하기관, 베트남의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분들이 자문위원으로 계심), 봉사활동에 대한 증명이 분명합니다. 봉사 활동에 대한 배움과 보람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요구하는 봉사시간과 입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활동에 대한 증명이 확실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자원봉사 확인증 발급). 많은 청소년들이 대,청,밥을 통하여 가난하고 험벗은 이웃들을 섬기는 모습을 상상하니 벌써 흥이 나고 기다려집니다.



이 중 현
베트남 다일공동체 원장



필다일에서 부르는 새 노래

Philippines



글 | 이명현
필리핀 다일공동체 원장

“여호와를 찬양하라! 온 땅이여, 온 하늘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필리핀의 맑고 푸르른 하늘과 초록 들판을 바라보니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나라, 필리핀에서 이명현 인사 올립니다.

새로운 사명실현지로 “가라”는 명을 받고 필리핀 다일공동체로 왔습니다. 저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땅입니다.

필리핀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제가 이전에 섬겼던 사역지들 보다 필리핀은 한결 잘 사는 나라였고 기독교를 배경으로 한 나라이기에 영적인 긴장감이나 전의도 덜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날이 흐르면서 여기가 선교지라는 게 조금씩 조금씩 몸으로 체감되어가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빛의 부분이 아닌 어둠의 부분, 빈민촌의 가난한 아이들만은 여느 나라와 같았습니다. 배고프고 험하고 어두운 곳, 그 곳이 곧 선교지였습니다.

필리핀에 와서 비로소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선교지에 대한 저의 사명은 지극히 국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캄보디아에서도 그랬고, 특히 네팔에 제 마음이 꽂! 꽂혔었던 것도 그랬습니다. 캄보디아보다도 훨씬 열악한 네팔에서의 삶은 비록 힘들고 고생스럽긴 했었지만, 다시 네팔로 재파송되어 돌아가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뒤돌아보니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국지적 선교 사명에 묶일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지구촌 시대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지구 저 쪽 끝에서 일어

난 일을 지구 이 쪽 끝에서도 동시간대에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어렴풋이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보니, 저를 필리핀으로 보내신 그분의 뜻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의 배고픔을 덜어주고, 상처를 치유해 주고, 햇빛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선물하는 ‘밥퍼’는, 정말, 그 맛이 최고!! 입니다. 필리핀다일공동체에서 이렇게 좋은 밥퍼를 다시 섬길 수 있게 되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게다가 1대 원장 김혜경 목사님이 잘 다져놓으신 필리핀다일공동체에서 인수를 잘 마치고, 해원협 파견 단원(추고은, 정은희, 이효진)과 장기 봉사자(변규리)까지 어여쁜 세 자매와 함께 새출발하게 되었으니...

이들과 함께 시작하는 필다일 제2막!!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필리핀 다일공동체 후원하기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33964 (예금주 :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문의	필리핀 이명현원장 63-927-560-7346

Nepal



제3회 지태다일유치원 졸업식



글 | 박종원
네팔 다일공동체 원장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연필을 잡고
동그라미를 그리던 쓰기시간

엉덩이를 흔들며 가며 선생님의
울동을 따라하던 음악시간

순가락이 익숙치않아 반은 입으로
반은 식탁에 흘려가며 교실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점심시간

2013년 4월 2일 제3회 지태다일유치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모두 2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1년전 입학할 무렵, 말도 잘 하지 못하고 배변훈련도 되기 전이었던 2살배기 아이들. 1년 후인 지금, 아이들이 제법 의젓해졌습니다.

1년의 시간이 참으로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이제는 네팔어 알파벳 쓰기는 물론이요, 숫자 영어알파벳 모두 척척 씩습니다. 친구들과 자유놀이 시간에 양보를 하기도 하며 줄도 척척 잘 서는 형·누나가 되었습니다.

졸업생 아이들은 올해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네팔은 초등학교 안에 유치원 클래스가 있어서 4~5살 때 입학은 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닌다는 생각을 하니 걱정 반 뿌듯함 반입니다. 이제 이 아이들은 교복을 입고 밥퍼에서 만나게 되겠지요.

학교에서 더 크고 더 높은 꿈을 가득 키우길 기도하며..♡

빈민촌에 있지만 일반 마을보다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선생님들이 섬기는 지태다일유치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영화배우 유지태 홍보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4월 16일이면 제4기 유치원생들이 새롭게 입학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아이들이 입학할지, 어떤 유치원 생활이 펼쳐질지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팔 다일공동체 후원하기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57448 (예금주 :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문의	네팔 박종원원장 977-98494-58330





창립 21주년 기념 릴레이 봉사 한전 KDN

만물이 새롭게 단장되는 새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한전KDN이 밥퍼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천사기업들을 기다립니다.

다일공동체의 국내외의 사업에 동참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주실 기업을 기다립니다.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지금부터, 여기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다일복지재단 02-2212-8004
밥퍼나눔운동본부 02-2214-0365



한전KDN은 창립21주년을 맞아 사회공헌활동의 시작을 알리며 각 본부별로 하루씩 나흘간의 밥퍼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전력IT로 열여가는 그린에너지 세상을 꿈꾸는 한전KDN은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글로벌 전력IT기업을 표방하며 지속가능성장을 다지는 기업으로써 21주년을 기점으로 새롭게 출발하고자하는 원동력을 사회공헌활동으로 잡고 전 임직원들이 봉사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처음 참여하는 봉사활동인지라 긴장과 가벼운 염려로 시작했지만, 봉사에 참여하는 한분 한분이 신나고 즐겁게 봉사에 참여하시는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열심을 다해 어르신들을 섬기시는 모습에서 한전KDN의 저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4월 9일 김용팔 본부장님과 임직원분들을 시작으로 10일 정상봉 본부장님과 임직원, 11일 정형중 본부장님과 임직원, 16일 김병일 대표님과 임직원분들을 마지막으로 2013년 나흘간의 첫 봉사의 보람을 이야기하며 마무리 하였습니다.

하루의 봉사였지만 이 하루로 인해 기쁜 마음으로 직장에 돌아가 새로운 마음 가짐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해주시는 한전KDN! 여러분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김기범

이 땅에 밥 굶는이가 없을 때까지라는 문구처럼 내 주위를 돌아보고 한 번더 생각하는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반찬 투정하는 딸들과 같이 한 번더 와서 딸들에게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은 든든한 사랑 나눔의 시간이었다.

심용한

짧지만 의미있는 봉사활동을 통해 나를 되돌아보는 좋은 경험이었고 이러한 봉사활동은 나에게 더 도움이 되는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창호

이곳에서 지치고 힘든 영혼이 많고, 밝고, 바르게 정화되어 가길 바랍니다. 저도 앞으로 희망과 봉사의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겠습니다.



밥퍼는 ○○○이다

온탕이다 _____ 개인봉사자 장원
 거칠었던 사람들이 밥먹고 온순해진다. 몸을 담그고 나오면 느긋해지는 온탕처럼...

온풍기다 _____ 한일이화 이진목
 때로는 힘들때도 있지만 항상 따스함을 갖고 돌아가는 길이 훈훈하니까. 봉사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따스함을 언제나 제공해주는 밥퍼야말로 사회에 따스함을 더해주는 온풍기이다.

생명수다 _____ 국방홍보원 박병호
 오늘 직접 밥을 푸는 봉사를 했다. 최대한 정성껏 꾸려고 노력하였지만 이쁘게 퍼지지가 않았다. 혹시라도 드시는 분이 성의없게 느껴지거나 않았나 걱정이 된다. 퇴직을 얼마 앞두고 하는 봉사는 더욱 보람있다.

그리움이다 _____ 하늘샘교회 한수봉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의 얼굴에서 돌아가신 아버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따뜻한 식사도 제대로 못 대접해드렸는데 여기서 많은 분들께 대접을 해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내 마음의 위안을 얻고 가는 느낌입니다.

진정한 나눔의 실천이다 청량리승무사업소 양현철
 요즘처럼 최첨단을 달리는 모든것이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 주변에 밥 한끼를 먹기위해 아침일찍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신 많은 인파에 우선 놀라웠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음식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음을 새삼 느꼈다. 나의 작은 봉사가 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금일 뜻깊은 봉사활동이었던 것 같다.

씨앗이다 _____ 한전KDN 신안섭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서 다시 열매를 맺고 조그마한 시작에서 점점 사랑이 확대되어가는 밥퍼는 씨앗입니다.

미소다 _____ 한전KDN 김영은
 일에 정신없이 치여서, 쫓겨서 미소지를 일이 없어졌었는데 오랜만에 크게 웃고 미소지를 일이 생겼습니다. 함께 봉사하시는 분들도 같이 웃으시고 밥을 드시러오시는 분들도 같이 웃으실 수 있는 공간이었고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따스하네요.

유기농이다 _____ 소명중고 장영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사람에게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반딧불이다 _____ 한일이화 김일영
 밝지는 않지만 여름밤 하늘을 아름답게 하는 반딧불이다. 너무 찬란하지 않으면서 모든 힘든 사람에게 삶의 희망을 이어주는 아름답고 소중한 빛이다.

인연이다 _____ 금호석유화학 김준
 별처럼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다른 시선으로 인생의 향로를 걸어가는데 밥퍼를 통하여 또 다른 세상을 만나는 인연이 되었습니다. 항상 따뜻한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나이다 _____ 성일교회 이영미
 낯선 사람들과 함께한 자리, '잘 될까?' 라는 생각을 무색케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가 일사천리 일을 해내는 모습에 감동! 식사를 하며 행복해 하고 "감사합니다."하며 인사하고 가시는 분들을 뵈며 감동!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서울그린트러스트/서울시립대 김아연교수

4월5일 식목일 작년과 같이 올해도 서울그린트러스트와 서울시립대 김아연교수님과 학생들이 밥퍼 앞마당에 예쁜꽃을 심어주셔서 밥퍼가 더욱 환해졌어요! 아름다운 밥퍼, 밥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봄바람과 함께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밥퍼를 찾아오셔서 뜨거운 봉사 와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계속 밥퍼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잘 될겁니다! 화이팅!



영란여중

부활절 예배때 학생들이 모은 계란 865개와 밥퍼에 가난한 어르신과 탄자니아 밥퍼에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급식비 1,264,230원 모아서 이평일 교목님과 학생 간부들이 전해주셨습니다. 사랑의 온도가 1℃ 올라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샘교회

멋지고 마음이 따뜻한 이영우 목사님과 하늘샘교회 성도 스물 여덟분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따뜻한 사랑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배식비도 후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늘샘이 솟아나는 하늘샘교회 온맘다해 축복합니다.



러쉬앤캐쉬

감동의 야간 밥퍼봉사!! 저녁7시 러쉬앤캐쉬 청량리지점의 이정덕지점장님과 함께 일하시는 직원 일곱분이 업무를 마치고 밥퍼의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껏 만든 김치를 담귀 주셨습니다. 후원까지 해주신 러쉬앤캐쉬 감동입니다!



삼진제약

제약회사 최고! 삼진제약이 나눔봉사에도 최고! 황의복팀장, 한인수팀장과 직원분들이 아침출근전에 밥퍼에 오셔서 어르신들을 위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시고 기쁨의 봉사에 감사하시다고 후원금도 주셨네요. 삼진제약! 멋져요!



한국벤처투자

정유신사장님과 한국벤처투자 임직원분들이 소리없이 따뜻하고 깊은 사랑을 밥퍼에 나누어 주고 기셨습니다. 밥퍼 봉사 때 얼마나 환한 미소로 봉사하시던지 함께한 모든 봉사자들이 감동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신하군팬클럽

풍성한 쌀 나눔! 영화배우 신하군 컴백기념으로 팬클럽에서 쌀 500kg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하군님과 팬클럽 여러분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길!!!



외환은행

항상 나눔과 섬김의 모델이 되는 외환은행나눔재단이 이번달에도 찾아오셔서 따뜻한 밥상과 함께 사랑을 나누어 드리고 기셨습니다.

2013년 3월 30일,
2년 동안 선린대학교에서 공부를 마친 캄보디아 청년 리비다가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서 일하다가 다일복지재단 장학생으로 한국에 와서 100% 한국어로 진행되는 강의를 들으며 대학교를 졸업한 리비다. 고향에 돌아가는 마지막 발걸음을 함께하며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Q. 한국에서 좋았던 것...?

A. 캄보디아에서 모르는 것들을 한국에서는 찾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사생활도 캄보디아에서는 낯설(더운 것)나 불편한 점들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환경(날씨)이 좋아서 살기 좋았어요.

Q. 한국에서 살면서 고국 캄보디아가 그리웠던 적...?

A. 학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다일복지재단에서 자원봉사하면서 집이 많이 보고 싶어졌어요. 다일 재단에서 만든 동영상들을 보면 가난한 나라와 아이들이 나오니까 집 생각이 많이 났어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 가난 속에서 얼마나 고통 받는지, 얼마나 힘들지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여기서 배운 것들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Q. 공부를 다 마치고 돌아가는 소감 한 마디...?

A. “잘했다!” 끝까지 해낼 수 있던 것이 뿌듯해요. 다일공동체에는 ‘지금부터, 여기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나부터’라는 말이 있는데 힘이 들 때마다 이 말을 생각하며 힘을 얻었어요.

Q. 한국에서 제일 고마웠던 것...?

A. 하나님께 가장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요. 한국에서 지내면서 지금 고민하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의 고민이 있었

을 때 조용근 회장님께서 고민을 들어 주시고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셨어요. 조용근 회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친형제 같은 리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리일, 우리가 같이 생활하면서 가끔씩 서로 오해를 하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기도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서 고마웠어! 앞으로도 아프지 않게 먹을 것 잘 챙겨먹고 열심히 공부하고 제빵 자격증 딸 수 있기를 바랄게!!”

Q. 앞으로의 꿈...?

A. 꿈이 크진 않지만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 가이드를 하고 싶었어요. 관광 분야에 관심이 많아요. 할 수 있다면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안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안내하는 일을 하며 꿈을 키우고 싶어요.

다일 장학생으로 한국에 와서 대학 생활을 하고 영성수련 벗님으로, 진지 도우미로, DTS 훈련생으로 깊은 영성 생활을 하며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청년 리비다. 인터뷰 내내 밝고 유쾌하고 한국에서 지낸 장학 생활을 이야기하는 리비다를 이어, 더욱 많은 아시아의 청년들이 장학생이 되어 꿈을 품고 키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기도

윌리엄 버클레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정처럼 고귀하고
사랑처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없음을 아나이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만난 모든 친구들에게 대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여행하고 함께 다니며

함께 일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며

함께 식사를 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단순한 친구 이상의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과
제가 사랑하는 자들과 저를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제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며

저의 마음에 용기를 주는 자들과

사랑으로 제게 매일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들에 대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저로 하여금 친구들에게는 항상 충성되게 하시고

저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진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도서출판 마음의 숲의 영혼을 위로해 주는 시 [이루어지게 하소서]중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김연수 시인이 소중하게 여겨온 기도시들을 번역하여 엮은 책으로 신앙인이 아니어도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위로 받고 싶고 용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힘이 되는 글들이 담겨있습니다.

시인은 현재 다일영성생활수련원 원장이자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의 상임이사이며, 시집으로는 <숨어사는 신화> <그대가 내게로 오면> <아득한 별에 꽃씨 묻으며> <실락원의 연인들> <꽃심>이 있으며, 산문집으로 <사랑이 있어도 때로는 눈물겹다> 등이 있습니다.

네 팔

1. 사랑의열매 대안생리대 5차 교육

마느하르 빈민촌 여성들의 건강을 위한 제5차 대안생리대 교육이 많은 여성들이 참석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이미 이것을 사용한 많은 여성들이 큰 관심을 갖고 주위의 분들을 데리고 와서 갈수록 관심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초경을 시작한 여자아이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주신 고귀한 특권에 대해 그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미싱직업기술학교의 아주머니 학생들도 갈수록 좋은 제품들을 만들고 있으며 가방과 옷 등 다른 제품들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2. 호프클래스(Hope Class)에서 호프스쿨(Hope School)로

네팔의 집시촌 아이들과 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들을 위한 호프클래스가 4월 12일로 지난 3년간의 기나긴 일정을 마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선생님들이 너무도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호프클래스는 대안학교 호프스쿨로 업그레이드되어 4월 22일 첫수업을 합니다. 이 첫수업을 위해 새로 지어지는 대안학교 공사가 손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22일 네팔다일공동체의 역사를 장식할 대안학교 첫수업에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희망이 없던 우리 아이들이 이 학교를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일구어갈 것을 생각하니 감사의 눈물이 맺힙니다. 그리고 참 행복합니다.

3. 포카라 빵퍼준비와 고르카 네팔다일농장 준비를 위한 출장

수도 카트만두에 이어 제2의 도시인 포카라에 포카라다일공동체 지부를 준비하기 위해 포카라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공항 옆에 위치한 빈민촌의 공립학교에서 밥을 못먹고 공부를 하는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빵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학교 학생들 가운데 40% 정도가 아침밥을 못먹고 오후까지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유서깊은 고르카도 다녀왔습니다. 이 마을교회의 교우님들과 함께 네팔다일농장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일의 정신대로 먼저 염소 한 마리, 닭 한 마리로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염소 오백마리, 닭 오천마리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농부들에게는 가계소득의 증대를 가져오고 네팔다일공동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마련하는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들의 응원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어미 염소 한 마리는 5만원(50불)이고, 암탉 한 마리는 2만원(20불)입니다. 5

월 말까지 염소는 100마리, 닭은 300마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

1.우리는행 호치민지점과 함께한 사랑의 나눔.

우리는행 호치민지점의 최철우지점장님과 직원들이 밥퍼 봉사를 오시면서 빈손으로 오시지 않고 급식재료비 후원은 물론이고 식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쌀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밥퍼 사역지에 봉사만 오면 기분이 좋아지고 밥퍼 봉사를 널리 알려 많은 분들이 봉사에 참여해서 기쁨을 같이 나누어야 한다"며 웃으시는 최지점장님과 우리는행 호치민지점 직원들 덕분에 모든 사람들이 식사하시는 내내 웃음꽃을 피웠고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되돌아가는 길에는 양 손에 쌀을 들고 가셨습니다. 양 손에 쥐어진 쌀로 온 가족이 모여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2. 사랑의 향기가 가득한 향기론 목장 봉사.

사이공한인연합교회 향기론 목장 가족들이 봉사를 오셨습니다. 식사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기 위해 계란을 삶고 사탕을 일일이 포장해서 가져 오셨습니다. 봉사오시기 전부터 준비해 주신 음식을 나누시면서 시종 즐거워 하셨습니다. 엄마를 따라 온 꼬마 천사들도 이웃을 섬기겠다며 앞치마를 입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봉사에 참여 하였습니다. 부모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이웃을 섬기며 사랑을 나누면서 더욱 행복해 하는 모습에 보는 저희들이 더 행복해집니다.

중국

1.엔타이에서 온 준호의 사진

다이어린이집에서 성장해 이제는 멀리 엔타이에 있는 준호가 안부를 전하며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사진 속의 준호의 모습을 보며 너무 흐뭇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릴적 부모님을 여의고 고모와 살다가 고모가 재가를 하시며 다이어린이집으로 왔던 준호는 늘 남을 배려하고 온순하며 축구를 유난히 좋아했던 아이였습니다.

준호는 지난해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썬양에서 공부를 마치고 중국 다이어린이집에서 독립했습니다.

작년에는 썬양의 학교를 마치고 한국에 잠시 방문할 기회가 있어 최일도 목사님을 만나 뵙고 좋은 말씀도 듣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 그때를 두고 두고 말하곤 합니다. 현

재 준호는 엔타이에서 찬양사역자로, 축구교실 선생님이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 믿음까지 너무 예쁘게 성장한 다일의 아들, 준호! 당당히 아름다운 세상을 찾아 누리는 준호! 다일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2. 시애틀에서 오신 의사서생님

멀리 시애틀에서 다일어린이집에 의사 선생님 부부와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덕분에 온 가족이 건강검진도 받고 치료가 필요한 산이와 성춘이, 원삼이는 필요한 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의사선생님의 정성스런 손길에 한번도 가 본 적 없는 시애틀이 가깝게 느껴집니다. 감사드립니다!

캄보디아

1. 공동모금회 빵퍼 실시

3차년도 빵퍼 중간보고가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무사히 마쳐졌습니다. 한국에서 떠나면 캄보디아까지 와서 실시팀을 안내해 주신 가영간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실시팀 분들도 굉장히 흡족해 하시며 실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2.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들도..

캄다일 공동체도 고난주간을 맞아, 모든 지체가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였습니다. 3.28 성 목요일에는 원장님의 인도 하에 세족식을 거행하여, 서로의 발을 감사와 눈물로 씻기어 주었고, 다음날 금요일에는 전 스태프 함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며, 주님의 고통을 묵상하고, 감사와 회계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 드렸습니다.

탄자니아

1. 양동이소년

쿤두치 채석장 마을은 물과 전기가 공급 되지 않는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생존에 꼭 필요한 물이 귀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두 명의 소년을 만났습니다. 웅덩이에 고인 흙탕물을 양동이에 담아 집으로 가져가는 길입니다. 야윈 두 소년이 휘청대며 양동이를 들고 어렵게 집까지 가지만 얼굴에서는 밝은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비가 온 덕분에 집 근처에서 고인 물을 퍼 갈수 있어 멀리까지 가서 물을 사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마냥 흘러 지나가는 빗물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처럼 귀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한



(네팔) 포카라 빵퍼 준비와 고르카 네팔 다일농장 준비를 위한 출장



(중국) 시애틀에서 오신 의사선생님



(탄자니아) 양동이 소년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 있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Maji ni uhai!

2. 김창규 선교사님 방문

쿤두치 채석장에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현재 탄자니아의 수도 '도도마'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사명을 실천하고 계신 다일교회 청년 출신, 김창규 선교사님께서 아내 이소라 선교사님과 함께 밥퍼를 찾아 주셨습니다. 신학교가 부활절 방학을 맞이하여 밥퍼 자원봉사를 하였고 오실 때 500명 넘는 아이들이 빵을 먹을 수 있도록 후원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 후원금은 김창규 선교사님의 밥퍼 봉사 소식을 듣고 한국에 계신 친구 목사님도 함께 후원하신 것이라 감동이 두 배로 넘쳐났습니다. 김창규 선교사님+이소라 선교사님과 친구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 분의 사랑으로 쿤두치 채석장 아이들이 일용할 양식을 감사함으로 잘 받고 먹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여기는 탄자니아 다일공동체입니다!

왼쪽부터

(탄자니아) 학교에 가게 된 에스더
(예향어린이집) 씨앗심기
(천사병원) 나눔천사 후원약품



3. 라마다니 형제

지난 달 회보에 소개해 드린 '라마다니' 형제와 결연을 맺어 주신 쿤두치 채석장 마을 아동들에게 옥수수 가루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앞으로 매 달 25일~30일 사이에 나누게 될 것입니다. 탄자니아 사람들의 주식인 '우갈리'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옥수수 가루! 한 포대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어 동네 가게에서 한 컵, 두 컵씩 사서 하루 한끼도 제대로 먹고 살 수 밖에 없는 이들에게 사랑의 마중물이 부여졌습니다. 옥수수 가루를 받고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귀에 입이 걸려 내려올 줄 모릅니다. 따뜻한 후원자님들 덕분에 아이들이 배고픈 채로 잠들지 않아도 되니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4. 에스더

9살인데 부모 없이 할머니 밑에서 양육되어 교복과 신발, 학용품 구입할 돈이 없어 학교를 가지 못했던 에스더에게 결연 후원회원님의 도움으로 교복과 가방, 신발, 학용품이 전달 되었습니다. 이제는 맨 발이 아닌 신발을 신고 그렇게 가고 싶어했던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쿤두치 채석장 빈민촌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후원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탄자니아입니다!

예향어린이집

1. 씨앗심기

4월 5일에는 식목일을 맞이하여 예향친구들이 예향어린이집 텃밭에 씨앗을 심어보는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반 별로 호박 씨앗과 상추씨앗을 준비하여 씨앗을 탐색해보고 이야기도 나누어보며 사전활동을 나눈 후 텃밭에 씨앗을 넣고 흙을 꼭꼭 덮어 주었어요. 씨앗을 뿌리고 난 후에는 물조리개에 물을 담아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물을 뿌려주었습니다. 빨리 새싹이 나오길 기다리는 예향 친구들이예요.

2. 동화구연

4월 8일에는 강남구 시니어플라자 복지관에서 할머니들이 방문하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동화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할머니와 노래로 인사도 나누어보고 할머니께서 준비해오신 인형을 보며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시간

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할머니와 헤어지기 아쉬워서 자리에 계속 앉아있던 예향친구들이었어요.

3. 4월 생일잔치

4월에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의 생일잔치가 있었습니다.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도, 생일을 축하해주던 친구들도 모두 함께 어린 시절의 하나님을 닮아 지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감사기도를 드리며 친구들이 나누어주는 생일선물도 받으며 우리 친구들의 얼굴에 함박웃음이 가득했던 즐거운 생일잔치였습니다.

천사병원

영일제약, 한미약품에서 천사병원에 나눔천사로 동참해주셨습니다.이 귀한 약들은 천사병원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캄보디아 다일 클리닉,베트남 다일공동체에 약이 없어 치료받을 수 없는 이웃에게 보내어집니다. 나눔천사에 동참해 주신 영일제약, 한미약품 감사합니다.

설곡산

요즘 설곡산을 찾는 이들의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포에서부터 설곡산에서의 하루를 위해 먼길 달려와 하루를 포기하게 쉬고 돌아가신 원나영 갈리님의 남편과 아이의 피정, 더 멀리 호주에서 귀국하여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영성과 침묵의 성지요 그가 공동체 가족으로 살면서 섬겼던 설곡산에서 첫 날밤을 지내기 위해 온 전주연 무침이님 부부, 언제나 공동체를 사랑하여 두 손 가득 선물을 들고 달려오시는 박혁, 평야님과 정성경, 돼지님과 아이들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다시 일어나는 신동채 물님과 그가 개척한 민들레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껏 기도하며 교제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설곡산은 항상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벗님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평안한 침과 깊은깨달음을 주는 영성과 침묵의 성지인 설곡산에 오세요~ 설곡산다일공동체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규 회원들께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2013년 3월 20일~4월 22일

신규후원자

조철범 김명순 김경희 임강현 황종태 백은정 이준섭 유보근 김동해 황영희 장수영 박지환 김다라 송석현 이해정 이유나 박애순 이종희 안해숙 이아현 조대일 최진호 김태민(홍순분) 윤정순 윤현주 김인에 임명희 이진호 박혜원 남연경 이강숙 송명인 이경희 허열 허진 김민희 박형준 강옥순 김형 이재영 최정덕 이영현 조하나 전은주 안강웅 김금란 이윤경 배덕자(이상건) 김동선 번성하는교회203목장(구정희) 한장석 최성욱 유지원 최윤영 이종신 현경희 이선희 김지성 송기표 염정숙 김해인 문찬식 최용열 박창남 한선희 배미선 서금자 정지운 박창기 조은숙 이상용 박경옥 조종선 임숙자 이태영 성명희 황시영 박정숙 김재숙 오정란 이경수 김정경 이규상 이구희 이정필 송주환 함영미 곽현우 양경순 차문자 추정숙 손영수 강막레 염은지 이선옥 김교상 홍영자 천혜림 이명재 김경식 김용대 김동호 천대영 이해옥 박재용 김학명 박정순 우일구 송용규 이민영 박홍석 박정자 홍순남 유지성 최영남 이서현 정해경 최삼식 이인규 황유진 배노영 전신화 (주)SC제일은행 심영미 수지신협여성문화체험봉사단 채외자 신태호오순희 양병일 김남주 김형석 김미령 하재곤 최용진 이경숙 정영식 서덕민 정윤구 민은식 안춘미 최영란 강성진 박승구 박순애 (주)엠투엠넷김태정 신은혜 김영애 이정숙 정경자 조기웅 이정식 오선문 지방행정연수원전국지방4급공무원 김유오 유혜숙 박종미 김호진 홍성순 김정옥 강성남 박태용 정승우 장상만 백찬기 김수환 박준섭 최미성 김지수 이남예 이정희 류미야 주필연 김월심 허정자 (주)마린텍스타 소양교회최은숙 엄미경 이정자 shelbybell 서영남 김윤희 김솔아 이석현 수락관 첼로공연후원금 이재승 이병진 조병무(김순진) 유춘자 한일이화(주) 김재순 노상빈 강승희 엄미영 김성옥(이숙희) 박상철 조호현 송영민 스키니테 김성례 김영식 오선남 주아람 박명옥 최태양 양정자 아가페교회목장오임 류필선 김석우 이수현 임경순 전미나 영란여자중학교 코오롱인더스트리 서울비전농야교회 이진호 안진우 김옥영 이현석 윤정원 (주)일신건영 남상현 안효동 최성미 방화초신우회 최원규 정은주 안금화 김범용 권길덕 백현숙 김종민 김안식 송홍대 박현정 박주경 김도연 김은숙 윤소영 박천실 임수현 현수연 임지선 정찬병 진경 진우욱 양혜린 김기연 윤희섭(최정숙) 정명진 윤정순 장지영 박선영 이주화 이신혁 송인순 최성학 최광열 강소자 박경숙 전화순 문건현 문진주 안강현 이철 최외재권사 (주)보이락 임성화 이선숙 유행자 조우점 정현민 조은령 장맹례 이동건 황지영 박지혜 한경TV공감투자 임승지 손필순

3월20일~4월10일

밥퍼 -3월 후원금

현대상선, 외환은행나눔재단, 소망봉사팀, 에스지엔지, 김은정, 심진제약, 김다라, 이희숙, 양순하, 공무원연금공단, 이정환, 일산은혜교회, 박종일, 황재영,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김성욱, 김향숙, 이종욱, 서울석유, 인효진, 번성하는교회, 번성하는104, 러쉬앤케쉬, 지방행정연수원, 옥합선교회, 장문성, 대한지적공사, 한국벤처투자, 이정자, 서장선, 김재하, 싸월드(주), 하늘샘교회, 오탁호, 수락관, 박유미, 최경근, 에이엠지코, 한일이화, 스키니테, 소명중고등학교, 김성철, 대한지적공사, 인효진, 이동원, 윤순옥, 조현숙, 임민수, 3050아띠산악회, 서울비전농야교회, 코오롱인더스트리, 영란여중, 국방홍보원, 일신건영(주), 박명숙, 이일옥, 한전KDN

3월19일~4월10일

3월 후원물품

3/19	가나다푸드/김치	3/27	드림재단/빵, 사조대림/런천미트	4/4	문신자/아채류
3/21	드림재단/빵	3/28	김영월/쌀	4/9	사조해표/유기농소면,김
3/21	경동시장/해산물	4/2	무명/김치, 허예/시금치,	4/10	무명/김치, 서울유유/유유,
3/23	석촌자/쌀		이성자/고추가루, 가나다푸드/김치		사조대림/켄터키후랑크,
3/25	사랑의기도원/두부, 친한경사업단/콩나물	4/3	드림재단/빵, 신하군팬클럽/쌀, 영란여중/계란		드림재단/빵

베트남 대우인터내셔널, 우리은행 호치민지점, 포스코베트남, 보민건설, 아산상선, POS-SEA, 우리은행 호치민지점, 김희경, 이지현, 이용현, 포스코SOUTH ASIA, 베가스, 향기론목장, 한 글로벌, 김명환, 신한은행 노동조합, 사이공한인연합교회, 이은숙, 김승민, 김승준, 배서진, 배준익, 배진영, 전기성, 정여숙, 최기흠, 남승현, 최혜린, 최혜인, 추원미

베트남-후원물품 도넛도넛(249개), 포스코ICT(쌀40kg, 바나나), 베가스(우유9BOX, 컵라면5BOX,라면4BOX), 향기론목장(계란210개,사탕130봉지), 송월타울(수건 600장), 이중환(60만동), 대궐떡방(100만동), VDF(100만동), 신현우(100만동), 임선주(100만동)

중국 강영남(홍콩), 김성재(Obey & Praise), 림예화+원원철(COFFEE PLUS), 이숙의(시카고), 양자선교회(대표 허에스더)

캄보디아 조선대병원 홍순표 원장님, 대교, 하나투어, 경기도 사회복지사 협회, 밀양 남부교회, 신명교회

탄자니아 김영선, 김재욱, 김창규, 이해명, 최정욱, 서울디일교회, 탄자니아 한인교회

필리핀 한민족복지재단, PTS한인교회(김태규목사), 안금영, 유평준, 이명현

필리핀-후원물품 한민족복지재단(펠트 300점)

“현장에서 후원금을 전달해 주신 분들입니다.”

다일은 여러분의 땀과 정성이 담긴 귀한 후원금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사역에 앞장서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일복지재단 후원안내

ARS 060-708-1588

다일복지재단 후원 방법 안내

1. CMS(자동이체)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다일복지재단(02-2212-8004)으로 전화주시면
CMS 신청이 가능합니다.

2. www.dail.org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후원에 대하여 알 수 있고 손쉽게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후원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3. 착한소비 행복한 나눔

사랑의 보험

매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을 기부플랫폼에 견적 예약 하면 보험만기 1개월 전에 8개 보험사 비교견적을 제공하여 가장 좋은 가입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동시에 수익금의 30%(최대 3만원)가 다일공동체에 가입회원님의 이름으로 기부됩니다.

모든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체 참여

후원 문의

TEL 02-2212-8004

FAX 02-2212-8032

www.dail.org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1동 497-77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미주지역 후원계좌

은행이름 : **First Intercontinental Bank**

은행번호 : 061119794

계좌번호 : 1510014622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은행이름 : **Bank of America**

계좌번호 : 334001270347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한국에서 송금할때) 은행 wire code : BOFAUS3N

(미국에서 송금할때) 은행 wire code : 026009593

국내후원계좌 국민 467701-01-053115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미주다일공동체 후원 문의 Tel 1-770-813-0899
Fax 1-770-813-0133

DAIL Community of USA

P.O BOX 337 Suwanee, GA 30024-0337

국내 및 해외 분원 연락처와 후원계좌

밥퍼나눔운동본부

문의 전화 02-2214-0365

E-mail babfor@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901-04-037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설곡산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031-585-2004

E-mail abehong@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901-04-064419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천사병원

문의 전화 02-2213-8004

E-mail Sunyoung@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01-0975-87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작은천국

문의 전화 02-2213-8004

E-mail bjgjesus@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2450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평화의 마을

문의 전화 031-568-5004

E-mail ahtp7749@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2450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중국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6-433-753-8004

E-mail mookanri@dail.org

후원계좌 기업 017-033086-01-02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베트남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4-12-6317-7912
070-8220-6160

E-mail lplhome@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9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캄보디아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55-78-708080
855-12-808861

E-mail gracekeong@dail.org

후원계좌 씨엠립 국민 467701-01-142565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프놈펜 국민 467701-01-142578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필리핀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070-8220-3278
63-927-560-7346

E-mail emhok@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네팔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977-98494-58330

E-mail babperdail@hanmail.net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57448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탄자니아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070-8220-3669
255-786-740-003

E-mail bcj337@dail.org / dail8004@gmail.com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3396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5월 가정의 달 탄자니아 후원 이벤트

감동이 없는 선물은 가라!
다일과 함께하는 청정 뉴질랜드에서 온 유기농 선물 마누카내추럴이
탄자니아 밥퍼 후원모금 마련을 위한 5월 이벤트입니다!



“한정 300세트 판매목표를 위하여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배우 박성웅 신은정 마누카내추럴 부부 모델



식품유형 : 벌꿀
제조사 : Arataki Honey Ltd.
원산지 : 뉴질랜드
원재료명 및 함량 : 마누카꿀 100%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5년
보관방법 :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



다일영성수련



2013년
5~6월

5월10일(금) ~ 5월12일(주) | 7기 침묵묵상수련

5월20일(월) ~ 5월24일(금) | 1단계 145기 아름다운 세상찾기

6월24일(월) ~ 6월28일(금) | 1단계 146기 아름다운 세상찾기



“내 인생에서 못해본 여행이 딱 두가지 있다. 신혼여행과 우주여행
신혼여행이 얼마나 멋질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다일공동체에서 경험한
영적우주여행, 1단계 아름다운 세상찾기라는 영성수련은 여태까지
내가 한 여행중에서 가장 멋지고 황홀한 여행이었다.”

-한비아(전 월드컵전 구호팀장)

설곡산 다일공동체 시설이용안내

설곡산다일공동체는 침묵의 성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되는 공동체 정신과
나사렛 예수의 영성을 침묵과 노동속에서 구현합니다.
화해와 일치를 위해 섬김과 나눔을 살아가기 원하는 분과
치유와 회복을 위해 섬을 원하시는 분들을 기다립니다.



설곡산다일공동체 T: 031)585-2004
www.dail.org H: 010)7756-8004

영성수련(대관 및 개인피정) 신청은 수련 시작 일주일 전 선착순 마감하며,
수련비 입금(농협 355-0022-4654-93 예금주:다일공동체)으로 등록 완료됩니다.
영성수련은 한 달 전에 입금하시면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